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38년 된 병자Ⅱ

(요 5:1-9)

이중윤 원로목사



2. 기적의 통로

(1) 소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낫고자 하는 소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원은 신앙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다 헛수고입니다(시 146:3, 5). 부귀, 장수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어려울 때 찾을 분이 있고 즐거울 때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시 118:8, 9).

오늘 우리는 소원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약 4:3).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되 야곱같이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모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장인 될 사람의 요청에 따라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되 7년을 하루같이 하였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도저히 가망이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2) 은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요 5:8)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이지

만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능력에 찬 말씀입니다. 병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님은 은혜로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병자가 주님을 찾아 “주여 나를 좀 살려 주세요”라는 말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신앙이 치유의 선행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병을 고칩니다. 신앙이 치유의 선행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주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믿음도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 순종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5:9).

주님은 명령하시고, 38년 된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명령,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주님은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당신을 품에 안고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만 의지하는 그 백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꼭 안기어 가면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피조물 혹은 어떤 것을 우상화하거나 그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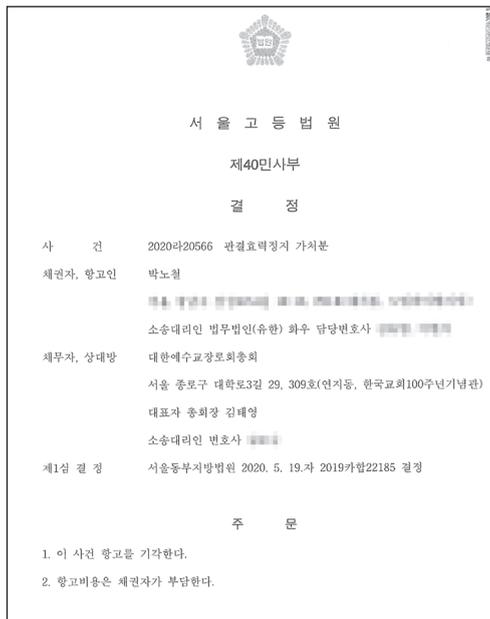
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 관련 가처분 항고기각결정

“
 박노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는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보다 더 분명한 취지의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의 서울강남노회의 노회원 자격과
 서울교회에서의 담임목사 자격 상실이
 더욱더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

서울고등법원(제40 민사부)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에게 대하여 정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박노철 목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1심 판결보다도 더 분명한 내용으로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사유, 즉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기소장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기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고 기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고소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또 일부 고소 내용은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곧바로 고소한 위법이 있어 결국 박노철 목사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 등에 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하지 않아 직접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는 재항고 절차에는 기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총회재판국의 기소명령에는 박노철 목사에게 대한 모든 고소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박노철 목사 역시 총회재판 과정에서 이 고소 건 모두에 대하여 적극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노철 목사는 사회법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종교단체 판결의 효력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그 판결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박노철 목사가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거짓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행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판결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전총회장 명의의 대표자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표자명의를 변경한 행위, 60여명의 용역원을 고용하여 교회건물 진입과정에서 다른 교인들을 다치게 한 행위, 장로 선출결의가 위법하다는 총회재판국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장로임직식을 강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면서 총회헌법 권징규



정 상의 죄과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실시하거나 또는 죄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회헌법규정에도 권징재판의 목적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의 유지 등이고, 이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지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비록 국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받은 행위일지라도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와 도덕의 측면에서는 죄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박노철 목사에게 아무런 권징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불복하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된 출교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본안에 관한 사건도 아니므로 최종 판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재항고를 통하여 박노철 목사의 불법이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노철 목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기각 결정을 받는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보다 더 분명한 취지의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의 서울강남노회의 노회원 자격과 서울교회에서의 담임목사 자격 상실이 더욱더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이제라도 서울강남노회는 앞서 총회에 약속한대로 이번 가을 정기노회 이후 헌법에 따른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조치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서울교회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영재 유성택·권진순 이주현·이주영 유은경
 황선영·박수옥 김형상·최금숙 정금희·채교천
 이영민 김영선·권택숙 안흥희·전화진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순례자 주최 -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0 사명자대회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0 사명자대회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글씨를 의미한다.

* 참가방법

1.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코람데오(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 혹은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을 회복케 하옵소서"를 손글씨로 작성
2. 2020 사명자대회 주제 성구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4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손글씨로 작성하고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손글씨 재료나 참가 갯수 또한 자유다.

* 참가 자격

유아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기한

2020. 11. 15(주일)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참가자들에게는 순례자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2020 사명자대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박정선 장로 (은퇴장로)

작년 사명자대회가 시작되던 2019년 10월 7일부터 릴레이 기도시간에 동참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고부터 나의 모든 일과는 바뀌었습니다. 1년이 거의 되어가던 2020년 9월 5일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1년간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었고 행복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를 드린 후에야 연구실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Corona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권유와 통제가 심해지던 올 9월 초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정부 방침으로 교회 출입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서 기도를 계속하며 2020년의 사명자 대회 기도회를 1년 만에 맞게 되니 가슴 벅차게 기쁨이 앞섭니다.

1년 동안 매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기도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열납(悅納)해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기를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내 일생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를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드릴 때면 흘러

간 29년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치며 눈물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연로하신 원로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는 늘 내가 애국자가 되어 절실한 기도였고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부유한 자유대한민국을 물려 주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 내려 주심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의 확신으로 마음은 벅차오르곤 하였습니다. 자식을 먼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시작하여 응답의 확신을 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30여년을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 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기도는 나의 중요한 기도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가르쳐 낸 제자들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한 기도시간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어렵고 긴 고통의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모두가 겪으며 인내하고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임을 마음속 깊게 되짚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후원

수험생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고등부 일동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도 모르게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느라 정신없

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환경도 어느덧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더욱 더 필요한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같이 움츠려드는게 우리 수험생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해는 등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가는 것조차도 통제를 받는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입니다. 일 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하며 열심히 준비해도 긴장되는 시기인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공부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 마음이 더 움츠려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입시과정이기도 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등부에 출석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정현, 김은빈, 김재령, 김태수, 송은희, 옥유진, 정서현, 최윤경)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입시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수험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사무국이나 교구 간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구별 수험생 명단 -

- 1교구 김정현
- 2교구 정서현
- 4교구 김은빈
- 5교구 김재령
- 6교구 옥유진
- 13교구 최윤경
- 14교구 송은희
- 16교구 김태수



기도 제목

1.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2.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되게 하소서
3. 입시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4. 학업에 임할 때 주께서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건강 지켜 주소서
5.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 하셨음을 믿고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후석 사랑의 배낭

유·초등부에서는 지난 9월 27일(주일), 28일(월) 추석을 앞두고 담당교역자와 교사들이 유·초등부 모든 어린이(일산, 원주, 제주 어린이는 택배 배송) 가정에 방문해 사랑의 떡과 성경 읽기표를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유·초등부 어린이에게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비대면으로 축복하며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교사들은 기도과 운전, 선물 준비, 사진촬영 등으로 수고해 주었습니다.

- 9월 27일(주일) 1차 배송 : 33명
역삼권, 은마, 개포우성, 수서, 송파, 우면동
- 9월 27일(주일) 2차 배송 : 14명
강북, 남양주, 구리, 하남
- 9월 28일(월) 3차배송 : 16명
분당, 용인, 영통, 광주, 안양
- 택배 : 5명
일산, 원주, 제주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12일	월	눅 1		사 50-59	
10월13일	화	눅 2-3		사 60-66	
10월14일	수	눅 4-6		렘 1-9	
10월15일	목	눅 7:1-8:21		렘 10-15	
10월16일	금	눅 8:22-9:62		렘 16-23	
10월17일	토	눅 10-11		렘 24-30	
10월18일	주일	눅 12-13		렘 31-36	

2020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1일 (주일) 온라인
본선 : 11월 7일 (토) 교회

2020 성경암송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 암송범위: 시편 119편
- * 예선 : 11월 1일(주일) / 온라인 방식
- * 본선 : 11월 7일(토) / 교회, 대면 방식

이미 다수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못 한 성도들은 남은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10(토) 사랑의 쌀 조찬기도회와 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경건회를 인도하고,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임시 이사회를 인도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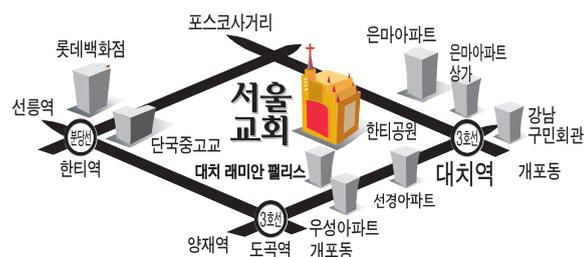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0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힘씀으로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